

4월의 편지

WRITER



임대청 다큐멘터리 감독
-말리언니, 제3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고양소식 편집위원



사진 출처: 다음 영화 말리언니, 스틸컷

말리언니
Molly's Home, 2020
장르 다큐멘터리
국가 한국
등급 전체관람가
러닝타임 30분



<말리언니> 주인공故말리홀트 여사가 거처한 거실



故말리홀트 여사와 마을 주민 대화 장면



탄현동 홀트마을 뒷산 마을주민 묘비 앞에서 추모하는故말리홀트 여사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 보이는 게시판. 4월이 되면 한 뼘 남짓 되는 이 게시판엔 온갖 포스터가 붙는다. 과외 학생을 찾는다든 종이부터 우리 동네 일꾼으로 일할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한다든 리플릿까지. 그 중 다른 홍보물에 가려져 절반 이상 보이지 않는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 포스터에 눈길이 쏠린다. ‘아,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다다를 무렵, 문득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8년 전 일이다.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타 부서에서 들어왔다. 그때, 여러 해 마음 한편에 담아둔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생각 스쳤다. 이 할머니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아와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분이다. 취재를 통해 할머니가 일산 탄현동 한 마을에서 300여 명의 장애인을 돌보며 여생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그늘진 근현대사를 함께 살아낸 할머니의 숭고한 일생을 영상에 담아내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던지지 고발하는 메시지도 포함한 다큐를 기획했다. 그런데,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기대감은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버렸다. 도무지 할머니의 일생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여든을 앞둔 할머니는 간호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넘어서인지 항상 골방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즐겨보기만 할 뿐이었다. 먹고, 쉬고, 책을 읽었고, 가끔 마을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할머니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성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영상이란 도구를 이용해 스토리를 짜는 영화에선 피해야 할 방식 중 하나다. 결국, 과거에 머물러 있던 할머니의 인생이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늘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무언가 새로운 모습이 잡힐길 기대하면서 할머니 집 문에 들어섰다. 앓, 마침 재밌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꼬마 아이가 할머니의 빨래 개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6살쯤 된 그 아이는 말은 없었지만 상당히 똘똘똘똘해 보였다. 아이가 능숙하게 돕고 있어서,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긴 어려웠다. 양쪽 입술이 갈라지고 심장 절반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는 사실도 말이다. 아이는 갈라진 입술 때문에 먹질 못했고 주변에선 아이가 금방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먹을 것을 으깨어 튜브를 사용해 코로 먹였고, 덕분에 아이는 여느 애들처럼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났다. 나는 그 아이를 본 순간 할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구

체화해 장애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했다. 아이를 졸졸 쫓아다니며 아이의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아마 그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퍼즐을 맞추며 노는 아이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카메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곁에서 아이를 렌즈에 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화내는 기색도 없이 들릴 듯 말 듯 내뱉었다. “내가 이상해요?”

순간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왜 이 아이가 그런 말을?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아이를 촬영했던 영상을 돌려봤다. 아이가 그네 타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소꿉놀이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편지 쓰는 모습... 아차,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들고 있던 카메라는 아이를 담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조막손을 찍어내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눈치챈 것이다. 아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도 결국 자신이 조막손을 가진 아이로 비치고 있음을 느꼈을 테다.

아이에게 몸살 짓을 했다는 생각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몸 둘 바를 몰랐다. 내가 아이한테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한 건가. 공부하는 아이의 영롱한 눈빛, 편지 쓸 때의 들뜬 표정, 그네 타면서 짓는 해맑은 얼굴 등등 순간순간 아이가 내뿜는 반짝이는 모습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며 다큐를 만드는 내가 오히려 그 편견에 기대어 있었다니... 다음 날 나는 군것질거리를 사 들고 아이에게 갔다. 아이는 말없이 먹었고,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동안 찍은 영상을 폐기하고, 그 아이를 담담하게 지켜보듯 다시 카메라에 담아냈다. 나의 데뷔작 「말리언니」가 탄생하게 된 순간이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도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8층 엘리베이터에서 주간보호센터로 향하는 휠체어 탄 할아버지의 힘 없는 두 다리에 여전히 눈길을 주고 있다.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이는 마을에 남았다.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학급에서 부반장도 맡았다고 한다. 어찌면 나는 아이의 친구들과보다 못한 어른이 아닌가 생각한다. 친구들은 나처럼 아이의 조막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리더십과 친화력 넘치는 아이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것이리라. 문득 그 아이가 보고 싶어진다. 올해는 꼭 그 아이와 함께 동네 행사를 즐겨야겠다.